충북 음성군 도통사道統祠 추향

공자 주벽에 국재 문정공 동1위 곡배된 곳

▲ 도통사의 향사가 봉행되고 있다

음력 9월 10일이 세일사歲一事 향례의 정일定日인 충북 음성군 생극면 방축리 능안 안동권씨 양촌 문충공文忠公 묘산 소재 도통사道統祠의 공기孔紀 2561년 추계 향사가 10월 17일 일요일 11시에 봉행되었다. 이 사당에는 문묘文廟인 성균관과 향교 이외의 원묘로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공자를 주벽主壁으로 모시고 있다. 주벽의 동서 양쪽에 주자朱子와 안문성공安文成公을 각 열배列配하고 동서의 양무兩딕에 고려시대 안문성공의 문인門人을 위주로 한 9현九賢을 곡배曲配하고 있는데 우리 안동권씨로 추밀공파 시조후 13세 국재菊齋 文正公 휘 보溥가 동일위東一位에 배향되고 있다. 따라서 휴전선 판문점의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발송리鉢松里 개산릉介山陵에 묘소가 소재하는 국재공의 우모처寓慕處로는, 그 후손에게 현재의 분단 상황에서 이곳이 유일한 곳으로 되고 있다.

음성지역 유림에서 주관하는 이 향사에는 배향위의 각 성씨 집안 후손과 유림 인사 등 1백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 날 초헌관은 음성군수가 예년과 같이 행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바쁜 일이 생겨 나오지 못하게 됨에 따라 생극면장이 나와 이를 대행하였다.

도통사는 원래 충주의 신니면에 있다가 군용지로 수용되어 훼철된 지 오래던 것을 10여년 전에 이곳으로 이전 중건하였는데 배향위의 위차와 추배追配 문제 등으로 후손간에 다툼과 이의 제기가 끊이지 않아왔다. 그러나 금년에는 이러한 이견이 점차 조정되었는지 행사에 들어가기 전이나 마친 후에 별다른 불협의 소리가 없었다. 행례의 집사 분방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 초헌관이 국재 문정공위에 삼상향을 하고 있다

초헌관 : 허금許棪 (생극면장)
아헌관 : 백낙순白樂舜
종헌관 : 이원모李沅模
집례 : 신연업辛演業
대축 : 최창규崔彰奎
직일直日 : 반재성潘在成
봉향 : 안재준安在俊
봉로 : 김형식金滎植
사준司樽 : 권태수權泰洙
봉작奉爵 : 이광섭李光燮
전작奠爵 : 주광만朱光晩
상례相禮 : 이완모李玩模
진설 : 권태우權泰佑
관세 洗 : 권영우權寧祐

<사진 · 글 權五焄>

정헌공 이하 5대 추향에 300여명 참제

경기 장단군 진동면 하포리 민통선내

▲ 정헌공 향사가 봉행되고 있다

2010년 10월 10일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하포리의 옛 지명 기온리其溫里 또는 저운동渚雲洞, 휴전선의 민통선 안에 소재하는 묘역에서 추밀공파樞密公派 시조후 14세 정헌공正獻公 계림부원대군鷄林府院大君(왕후王煦, 1296~1348)과 이하 5대 현조의 2010년 가을 향사가 봉행되었다. 정헌공은 세칭 구봉군九封君 국재菊齋 문정공文正公의 셋째아들로 초휘가 권재權載인데 충선왕의 왕자로 고려왕실 종적宗籍에 들어 왕후로 사성명되어 부원대군 영도첨의정승領都僉議政丞에 이르렀고 이곳 저운동의 백목곡柏木谷에 축좌丑坐로 유택을 들였는데 그 계하와 일대에 공의 독자 밀직공密直公 왕중귀王重貴를 비롯하여 손자 부윤공府尹公 권숙權肅, 집의공執義公 권權嚴 형제, 증손 좌윤공左尹公 순循, 화산부원군花山府院君 복復, 직장공直長公 득得, 현손 돈녕공敦寧公 격格, 예삼공禮參公 지至, 좌랑공佐郎公 온溫, 5대손 주부공主簿公 영담永聃, 승지공承旨公 욱旭 등 10여위의 묘단소墓壇所가 있다.

이날 아침 파평면 두포리의 전진교 남단 검문소 앞 집결지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본방손 참제원이 승용차편 등으로 모여들고 전세버스도 3대나 도착하여 잠시 교통이 혼잡하였다. 총원이 대략 300은 넘어 보이는 참제원은 도착한 순서대로 군 검문소의 출입 수속을 마치고 다리를 건너 이동하여 묘역 근처의 주차장에 닿았다.

이윽고 최존위 정헌공 묘전에 제물이 진설되는 동안 산신제가 먼저 올려지고 향례의 집사자執事者가 분정되었다. 그리고 집례執禮의 집전에 따라 분향焚香, 강신降神, 참신參神, 초헌初獻, 독축讀祝, 아헌亞獻, 종헌終獻, 사신辭神 순의 본행례가 거행되었다. 차례로 분방된 정헌공 이하 각위의 집사자 명단은 다음과 같았다.

▲정헌공위
초헌 : 권오갑權五甲
아헌 : 권돈원權焞遠
종헌 : 권희철權熙喆
집례 : 권석구權錫九
대축 : 권정택權貞澤
진설 : 권백원權伯遠
봉향 : 권영면權寧冕
봉로 : 권주원權炷遠
봉작 : 권종호權鍾浩
전작 : 권용수權容壽
사준 : 권용을權容乙, 권태순權兌淳
봉반奉盤 : 권범순權範淳

▲밀직공위
초헌 : 권진택權鎭澤
아헌 ; 권혁래權赫來
종헌 : 권희중權熙中
집례 : 권석구權錫九
대축 ; 권동준權東俊

▲부윤공위
초헌 : 권문원權文遠
아헌 : 권영욱權寧旭
종헌 : 권영록權寧祿
집례 : 권석구權錫九
대축 : 권태의權泰義
전작 : 권석원權錫遠

정헌공 · 밀직공 · 부윤공 3대의 향례를 마치고는 점심식사를 하였고, 중식 후에 다시 집의공부터의 향례가 진행되었다. 한편 후손 권남옥權南玉씨가 행례의 중간 시간에 보학

▲ 밀직공 향사에서 축문이 봉독되고 있다

해설을 통해 정헌공의 사성명 유래와 조선조 들어 부윤공 대에 복성復姓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설명해 주었다.

<사진 · 글 權炳逸>

능동춘추에 10년을 연재해온 천착물
한권의 단행본으로 발간

漢字도 우리글

한국어 어쩌면 좋은가
權光旭

서두를 한번 읽기 시작하면 몰랐던 우리 말글의 병을 자각하며 잠재의식의 회오리에 말려든다. 일독을 마치고 거기에서 벗어나노라면 우리 어문의 괴저와 뇌질환으로부터의 출구가 선명히 드러나 보인다.

신국판 403면 · 값 1,3000원 · 서점에서 구입
도서출판 해돋이
서울 종로구 필운동 285-5 파크뷰타워 807호 우110-044
전화 02) 734-3085 · 732-9139 / 전송 02) 738-8935
전자우편 haedogee@kornet.net

한자를 퇴출하고 박멸한 자리에 영어휘가 파도처럼 밀려들어오며 거개의 우리말 어휘는 살아남을 길이 없다. 영어를 잘하지도 못하면서 어법만 따라하느라 왜곡시켜 한국어는 뇌경색에 걸려 빈사상태이다. 영어를 국어화하기 앞서 한자부터 한국어에, 광의의 한글에 포함시켜야 한다.